

오케이온골프웹진을 스마트폰에서 보기 위해서는 어도비아크로벳리더(Adobe Acrobat Reader)가 필요합니다. 어도비아크로벳리더는 Play스토어(안드로이드폰),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 설치한 후 웹진을 보시면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15 프레지던츠컵 성료

아시아 최초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서 개최

세계 최고의 골프 대항전인 2015프레지던츠컵(The Presidents Cup 2015)이 지난달 6일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아시아 최초 대회의 성대한 막을 올렸다. 개회식에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조지 W. 부시 전 미국대통령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회 기간 6일 동안 약 10만여 명의 갤러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방문해 세계 최정상 골퍼들의 경기를 관전했다. 이번 프레지던츠컵에는 한국의 배상문 선수, 미국의 조던 스피스를 비롯 24명의 챔피언들이 참석했으며, 국가와 팀의 명예를 걸고 접전을 펼쳐 많은 국내외 골프팬들에게 평생 보기 힘든 최고의 명승부를 보여줬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대회가 세계의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 깊은 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대회를 기원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 대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다는 데서 의미가 크

다. 각국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승부는 마지막 날 싱글 매치에서 결판이 났다. 싱글 매치 초반에는 인터내셔널 팀이 뒤처지는 분위기였으나 경기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뒤바뀌었다. 마쓰야마 히데키(인터내셔널)가 승리를 이끌었고, 스티븐 보디치가 승리를 거뒀다. 마크 레시먼은 세계 랭킹 1위 조던 스피스를 1홀 차로 꺾었다. 예상 외로 팽팽한 경기가 펼쳐지면서 미국은 인터내셔널 팀에 1점 차로 우승을 거뒀다. 대회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다. 모두가 승자였다. 미국팀은 6연패를 달성하며 최강의 실력을 입증했고, 인터내셔널팀은 향상된 기술과 패기로 우승을 노렸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투혼을 발휘했다. 그것이 바로 프레지던츠컵의 매력이다.

대회 운영수익은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현재까지 총 기부액은 미화 3천2백만 달러(한화 329억 원)를 넘었으며, 15개 470개 이상의 자선단체에 기부됐다.

OK! 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



박성현 시즌 3승, OK저축은행 박세리인비테이셔널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렉시 톰슨우승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이형준우승
관련기사 2면

빠른 회복! 운동전/사후 근육, 관절에 바르세요

플렉스-파워

RECOVERY CREAM

멘톨 / 방부제 / 끈적임 zero

MSM - 관절 통증/염증 완화

글루코사민 - 연골 생성/분해 억제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박성현 시즌 3승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총상금 6억 원, 우승상금 1억2천만 원)이 지난달 2일,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솔모로 컨트리클럽(파72, 6,495야드)에서 막을 올렸다. 2010년부터 개최하여 6회째 열리는 본 대회는 골프계의 전설이자 많은 프로 선수의 롤모델인 박세리 선수

가 지난해부터 후원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의 주인공은 장타자 박성현이었다. 역전 우승으로 시즌 3승째를 기록했다. 박성현은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4개를 주고받았다. 4타를 줄여 함께 10언더파 206타로 1타 차 우승을 거머쥘었다.

박성현은 지난 6월 내셔널타이틀 대회인 한국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후 시원시원한 장타를 앞세워 인기 스타 반열에 올랐다.

그는 지난달 KDB 대우증권 클래식 우승에 이어 2주 만에 시즌 3승을 거둬 KLPGA투어의 새로운 강자가 됐다.

이번 우승 상금 1억 2천만 원을 받은 박성현은, 시즌 상금이 6억3천757만 원으로 늘어 상금랭킹도 4위에서 2위로 꺾여 뛰어올랐다. 박성현은 상금 1위인 전인지에 약 1억 3천300만 원 차이로 따라붙은 것. 시즌 막판에 상금왕 경쟁이 예상된다.

김해림에 1타 뒤진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박성현은 파 5, 5번 홀 버디로 공동 선두에 오른 뒤 파 4, 8번 홀 버디로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박성현은 10번 홀(파5) 3퍼트 보기로 주춤했지만 11번 홀(파4) 버디로 만회했다. 15번홀(파4)에서 3퍼트 보기로 2위그룹에 한 타 차로 쫓겼지만 17번홀(파3)에서 까다로운 버디 퍼트를 넣어 2타차 선두로 나서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생애 첫 우승에 도전한 김해림과 김지현은 나란히 9언더파로 1타 차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사진제공 : KLPGA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렉시툼슨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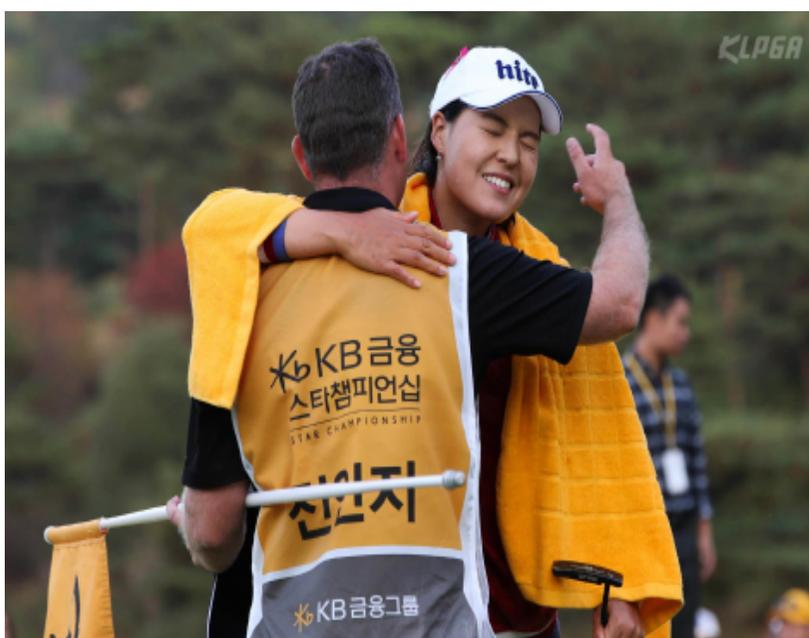
LPGA투어의 시즌을 마무리하는 최대 승부처,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약 22억 8천만 원)이 스카이에 72 골프 앤 리조트 오션코스에서 벌어졌다. 이날의 우승자는 렉시 톰슨(미국)이었다. 렉시 톰슨은 18일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기록했다. 톰슨은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로 경기를 마친 뒤 마지막 조의 플레이에서 우승을 결정되자 승리의 두 팔을 들어 올렸다. LPGA 투어 통산 6승째인 동시에 메이저 대회 2승을 기록한 순간이다. 렉시 톰슨은 이날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

였던 박성현(넵스)과 리디아 고(뉴질랜드)에 1타 뒤진 채 경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초반 마지막 조 선수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치고 나가서 리더보드 맨 윗칸에 자리를 잡았다. 파를 세이브하며 이어가더니 전반 마지막 세 홀을 버디로 장식했다. 반면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였던 박성현과 리디아 고는 아쉽게도 각각 공동 2위와 공동 4위로 마쳤다. 박성현은 “처음 LPGA 대회에 나와 4라운드 내내 상위권에 있어 좋았다. 성공적인 첫무대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KLPGA



톰슨은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로 경기를 마친 뒤 마지막 조의 플레이에서 우승을 결정되자 승리의 두 팔을 들어올렸다.

전인지,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우승 메이저 5승째



2015시즌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KB금융 스타챔피언십’(총상금 7억 원, 우승상금 1억4천만 원)이 오는 10월 22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남촌 컨트리클럽(파71 /6,571야드)에서 막을 올렸다. 우승컵의 주인공은 전인지(21·하이트진로), 마지막 라운드에서 역전우승을 거두며 또한 한 번 메이저 우승을 일궈냈다. 전인지는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묶어 2타를 줄여 최종 합계 10언더파로 1타 차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7월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이후 국내 대회에서 3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것으로, 상금왕과 다승왕 경쟁에서 턱밑까지 따라붙은 박성현의 추격을 벗어났다. 전인지는 올 시즌 KLPGA 무대에서 5승을

거두며 우승 상금 1억 4천만 원을 보태 시즌 상금이 9억 1,575만 원으로 늘었다. 박성현과는 2억 7천여만 원 차이이다. 전인지는 또 올 시즌 한국에서 메이저대회 2승, 일본에서 2승, 미국에서 1승을 했다.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메이저대회 우승 트로피만 5개를 차지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초청 선수로 출전한 세계 1위 박인비는 2타를 줄이며 함께 9언더파로 김해림과 함께 공동 2위를 했다. 박인비는 “2라운드에서 오버파를 치지 않았다면 우승 기회가 있었을 텐데 아쉽다”며 “LPGA투어에서 시즌 마무리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KLPGA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이형준 우승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총상금 8억원, 우승상금 2억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64명의 선수들이 맞대결을 펼친 가운데 이형준(23, JDX멀티스포츠)이 매치플레이의 신흥 강자로 등극하며 KPGA 코리아 투어 통산 2승을 달성했다.

2014년 '해럴드 KYJ 투어챔피언십'에서 KPGA 코리

안투어 첫 승을 거둔 이형준은 4강전에서 이성호(28)를 6&5(5홀 남기고 6홀 차 승리)로 제압한 뒤, 이동민(30, 바이네르)을 3&2로 누르고 결승에 오른 주흥철(34, 볼빅)과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승부를 이어갔다.

결승전 1번홀(파5)과 2번홀(파4)에서부터 티샷 OB(아웃 오브 바운즈)를 범한 이형준은 "처음부터 2홀을 내

주고 시작하는 기분이었다."며 "그립을 잡아도 손이 떨릴 만큼 긴장했지만 그럴수록 더 과감하게 하려 했다. 경기 내내 과감성과 집중력을 유지하다, 10번홀(파4)에서 승리하며 자신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후반 첫 홀인 10번홀(파4)에서 1홀차로 좁힌 이형준은 13번홀(파5)에서 버디를 낚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자신감을 갖고 더욱 과감하게 경기에 임한 이형준은 15번홀(파4)에서도 버디를 낚으며 승부를 뒤집은 뒤, 17번홀(파5)에서 파 세이브에 성공하며 보기를 범한 주흥철을 제치고 KPGA 코리아 투어 유일의 매치플레이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또한 2010년 신설해 올해로 6년 째 본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데상트코리아는 토요일 양일간 주요 선수와 사진 촬영 후 KPGA 액자에 넣어 기념품으로 제공해주는 '해피투게더 포토존' 운영 및 SNS채널을 통한 사진 접수 후 총 8명을 선발해 프로 선수 8명과 레슨을 진행하는 '원 포인트 레슨'(토, 일 각 4명), 대회 장을 찾은 아마추어 갤러리들의 '장타 대결'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며 대회장을 찾은 갤러리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자료제공: KPGA

2015 KPGA 챌린지투어 11회 by YAMAHA, 조병민 올 시즌 두 번째 우승

'KPGA 챌린지투어 9회 대회' 우승자 조병민(26, 선우팍)이 '2015 KPGA 챌린지투어 11회 by YAMAHA(총상금 8천만원, 우승상금 1천6백만원)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올 시즌 KPGA 챌린지투어 2승을 거뒀다.

지난달 5일과 6일 양일간 플라자CC 용인(경기도 용인시 소재) 라이온코스(파72, 6,672야드)에서 열린 본 대회 최종일, 조병민은 버디 4개와 보기 2개 적어내며 2타를 더 줄여 최종합계 10언더파 134타를 기록해 이날 더블보기 1개를 범했지만 이글 2개와 버디 1개를 낚으며 무서운 기세로 추격해온 정원(30)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올 시즌 두 차례 KPGA 챌린지투어 우승컵을 품에 안은 조병민은 "15번홀(파4)을 보기로 잘 막은 것이 오늘 우승의 결정적 요인이었다."며 "왼쪽으로 90도 가까이 꺾이는 홀인데, 드라이버로 잘 쳤다고 느끼고 두 번째 샷



을 위해 페어웨이 중앙으로 가니 공이 없어라. 한참 찾았지만 결국 OB(Out Of Bounds) 판정을 받고 다시 티샷했다."고 말했다.

이어 "핀까지 60m를 남기고 58도 웨지로 친 세 번째 샷이 홀 5m 앞쪽에 붙었고, 퍼트를 한번에 성공시키면서 보기로 잘 막았다. 굉장히 불안한 홀이었는데 마지막 퍼트

에 실패했다면 오늘 우승을 차지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최근 수 개월간 아이언 샷 연습에 집중했다는 조병민은 "아이언 샷 거리를 맞추는 연습을 많이 했다. 비거리가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들쭉날쭉 했던 거리감을 일정하게 끌어올렸고, 왼쪽으로 많이 흔들렸

던 방향도 일정해졌다."고 전했다.

조병민은 또한 "아이언샷 연습과 함께 경기 중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어떻게 하면 플레이를 잘 할 수 있을지를 많이 생각했다."고 말한 뒤 "올 시즌 챌린지투어에서 두 번 우승을 하며 스스로 그 결과를 확인한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OKongolf Club Championship

네트워크 온라인게임으로 진행되는 OK온골프 스크린골프대회로써 각매장, 동호회가 주관하여,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OK온골프 챔피언십이라 칭하며, 각 클럽대회를 통하여 매장, 동호회의 친목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계절 골프가 가능한 겨울골프의 메카 여수경도골프 & 리조트



여수 국동항에서 배로 5분 거리의 대경도에 위치한 여수경도골프 & 리조트.

잘 다듬어진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면 처음 마주하게 되는 커다란 기와집이 여수경도의 얼굴 클럽하우스다. 한국의 고풍스러운 미와 현대적인 간결함이 더해져 보는 이들로 하여금 ‘참 곱다.’ 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앞에서 보면 단층 기와지만 뒤편 스타트하우스에서는 3층 높이의 웅장함이 평범함을 거부한다. 작년 6월 말 금오도를 끝으로 27홀 모두 그랜드오픈한 여수경도골프 & 리조트는 이미 입소문을 타고 골프 매니아들 사이에선 ‘꿈의 그린’으로 통한다. 수도권에서 약 3시간 30분 거리로 우리나라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골프장이기 때문이다. 연평균 기온 14.6도의 아늑한 기후와 따뜻한 일조량, 청정한 남해바다가 빚어낸 자연이 살아 숨쉬는 국내 최초 아일랜드 골프코스. 그리고 지중해풍의 깔끔한 리조트, 파도소리와 뱃고동 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는 돌레길 코스 등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진정한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섬이다.

우리나라에도 바다를 조망하며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이 여럿 있지만 그 중 27홀 전체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한 골프장은 경도CC가 국내 유일하다.

모두가 힐링이 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에너지를 주는 섬.

우리나라에서 겨울골프로 가장 유명한 곳 27홀 전 홀에서 바다를 향해 쏘다 여수 경도골프 & 리조트는 정규 27홀 골프코스인 토너먼트코스인 금오도, 돌산도코스인 리조트코스인 오동도코스로 나뉜다. 설계는 링크스 코스의 세계적인 설계사 DMK Golf Design Ltd

의 David MaclayKidd가 맡았다. 27홀 모든 홀에서 바다조망이 되는 진정한 시사이드 골프장으로 해양횡단형 코스를 3홀 보유하고 있으며, 16개 이상의 홀이 바다와 맞닿아 있어 그야말로 지상낙원이다. 최근 오픈한 금오도 코스는 지형변화가 심한 남성적인 코스로 강한 해풍과 싸워 이기는 매력이 있는 코스다. 그리고 오동도 코스는 완만한 구릉과 다도해의 자연이 어우러지는 리조트형 코스로 여성스러운 코스다. 마지막으로 돌산도 코스는 해송 숲, 바다와 섬이 그려내는 토너먼트 코스로 그 조화가 일품인 코스다.

또한, 각 홀의 티박스로 고려청자를 모티브로한 뼈띠 고려청자를 놓아 그 단

아함이 여성골퍼들의 시선을 끈다. 아기자기하면서도 웅장한 미가 골고루 섞여있는 각 코스는 단 한 코스도 심심할 겨를이 없으며, 각 홀에서 바라다 보이는 바다의 모습도 모두 다르다. 겨울로 들어서는 11월, 이미 내륙에서는 겨울 맞을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나 여수경도는 느긋하다. 겨울이라고 달리 월동 준비해야 할 것은 많지 않다. 도리어 겨울도 7~8월과 다름없이 시즌이라 이용객 맞이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한 겨울에도 라운딩이 가능한 적정 기온을 유지하고 있어 그랜드 오픈 후 첫 겨울이 기대되고 있다.

고풍스런 지중해풍 콘도미니엄과 부대시설

총 100실 규모의 콘도는 4가지 타입의

객실을 가지고 있다. 지중해 연안 주변 경관을연상케 하는 건축양식의 특징적 형태를 모티브로 삼아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했으며, 바다 향기 정원의 콘셉트 도입으로 전 객실에서 해양경관 조망이 가능하게 하여 해양관광의 정취를 최대한 느낄 수 있는 숙박 시설로 조성되었다. 친환경 고급자재로 마감한 객실에는 남해 바다의 향기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쉼을 느낄수가 있고 이밖에도 300여 명이 수용 가능한 최첨단 대연회장, 세미나실 등이 구비되어 대규모 단체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곡선이 수려하고 아름다운 야외수영장과 야외 바비큐파티도 가능하고 있어 연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용객들이 누릴 수 있는 리조트의 볼거리 중엔 왕비 기도터와 산성터, 고인돌, 패총, 웅달샘, 소원수(해송650년), 살구나무(350년)가 있다.



팔색조의 매력을 가진 가수겸 배우 성은 "꾸밈없는 연기를 하고 싶어요."

학창시절의 '날라리'란 잘 놀고, 운동도 잘하는데, 공부도 잘하는 어떻게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연예계의 '진정한 날라리'가 목표라는 가수겸 배우 성은. 주체할 수 없는 끼로 연예계를 접수할 그녀의 매력을 들여다보자.



노모쇼(No more show)를 진행했는데, 에피소드가 있다면?

기대하시는 만큼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어요. 성격이 솔직한 편이라 가감없이 이야기 하는 편 이긴한데, 요즘 어린 친구들이 더 재밌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제가 많이 배우고 있죠.

섹시한 이미지가 강한데, 실제성격은 어떤지?

외모만 봤을때 섹시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실제 성격은 확실히 청순한 편이에요. 혼자있을때가 주로 그렇죠. 책보고, 집안정리 하고, 공부하며 청순하게 보내는데 낮가림이 심한 편이에요. 친한친구들 만나면 제가 남자같다는 소릴 들어요. 묵묵히 들어주고, 다 받아주는 남친같은 스타일이라고들 하죠. 실제 성격은 섹시량은 거리가 멀어요. 고향이 안동쪽이다 보니 보수적인 것도 있고요.

고착화된 이미지를 깨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저같은 경우는 데뷔때부터 섹시가수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내연녀, 남자를 뺀 역할, 연예인역할 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 변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연예인이 많은 세대이다 보니 섹시하면 나를 떠올릴 수 있게끔 더 밀고 나갔으면 좋았을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변신해서 이미지 각인이 안 된 듯한 느낌이 좀 있죠. 지금은 굳이 섹시하게 하지 않아도 늘 꼬리표가 따라다니죠. 그래서 이전 대중이 원하는 이미지로 그냥 가려고 해요.

최근 찍은 영화들이 좀 과감했는데, 부담은 없었는지?

나이가 서른이 넘어서 다 벗어던졌다는 표현은 좀 그렇구요. 나만의 이미지를 구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봉만대 감독

님을 믿는것도 있었구요. 영화자체가 페이지 크다큐란 장르가 가담만 잡혀있는 대본에 실제와 가상이 결합된 캐릭터이기에 더 신선했던 거죠. 실제 저도 여러 가지 면이 있을 수 밖에 없기에 즉흥연기 같은 느낌 이강했어요. 씬에서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배우가 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임했기에 큰 부담은 없었죠.

'진정한 날라리 연예인이 되고 싶다'하셨는데...

20대에 활동할 때는 솔직하지 못한 면이 있었어요. 내숭을 좀 떨었죠. 연예인을 한다는것 자체는 사건사고가 많을 수 밖에 없고, 학교 다닐 때도 진정한 날라리는 공부, 운동, 노는 것도 모두 잘하는 애들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지금은 공인이다 보니 말 한마디도 정확하게 하려고 하구요. 웬만하면 못한다는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요즘 더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팝콘동호회 활동중인데,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1년에 두 번정도 해외출사가 있는데, 공동의 취미를 가진 연예인들이 함께 공동된 피사체를 찍고, 공감하기 위한 사진을 찍고 있어요. 회장인 정종철씨가 장비하나만 있어도 스트레스해소도 되는 멋진 취미라구요. 골프도 4명에서 치지만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이라 할 수 있듯이 사진도 세상과 소통하는 자신만의 도구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을, 겨울은 국내외를 가리

지 않고 봉사활동을 위한출사가 있을 예정이에요.

사진 찍을 때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주로 풍경을 위주로 찍지만 저는 인물을 많이 찍는편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비틀어보려고 노력을 하죠. 있는 그대로 찍는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나만의 느낌을 살리며 찍으려고 노력하죠. 골프장을 예로들면 레스토랑 유리창을 통해 골프코스가 보이는데, 유리창에 비친 제모습을 좀 어둡게 하고 창가에 앉아 골프장을 바라보는 제모습을 담는게 괜찮을것 같네요.

구력, 베스트스코어, 자주가는 골프장?

블루마운틴이 기억에 남는데, 멋진경치와 코스가 인상적이긴 하지만 여자들이 치기엔 좀 어려웠던것 같아요. 80대 중반이 베스트스코어구요. 올해 초에 라운딩을 많이 하다보니 구력아닌 노하우가 생겨서 실력 향상이 많이 되었죠. 몇 년간 100순이었는데, 어느순간 스코어가 확 줄어드는걸 저도 경험했죠.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

꾸밈없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연기를 할때도 '재 연기하네?'란 소리를 안 들도록 '정말 그런거 아냐?'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꾸밈없는 연기가 되고 싶어요. 그게 내공이라 생각해요.

굳이 섹시하게 하지 않아도 늘 꼬리표가 따라다니죠. 그래서 이전 대중이 원하는 이미지로 그냥 가려고 해요.



캘러웨이골프, 오디세이 “웍스 크루저” 퍼터 출시

균형이 잘 맞는 퍼터는 볼이 스위트 스팟에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안정된 방향성을 제공하고, 홀과의 거리에 따라 볼에 적절한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거리 컨트롤도 용이하게 해준다. 카운터 밸런스 퍼터는 바로 이 “균형(Balance)”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다. 일반 퍼터의 밸런스 포인트가 헤드 쪽에 치우친 데 반해 카운터 밸런스 퍼터는 밸런스 포인트를 그립 쪽으로 이동시켜 퍼팅 스트로크 시 안정감을 높여준다. 빨리 퍼터의 대체품으로 개발되었던

이 퍼터는 최근 많은 선수와 골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캘러웨이골프(www.callawaygolfkorea.co.kr)는 인기몰이 중인 카운터 밸런스 퍼터를 한 단계 더 진화시킨 ‘웍스 크루저(Cruiser)’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캘러웨이골프의 ‘웍스 크루저’ 퍼터는 헤드와 그립 양쪽의 무게를 골퍼의 취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일반 카운터 밸런스 퍼터와는 또 다른 차별성을 갖는다. 헤드 하단부의 무게추를 사용하

면 헤드의 무게를 365g~385g 사이로 조정할 수 있으며 그립 부분은 5g, 15g, 30g으로 3단계 선택 조정이 가능하다. 그립의 무게가 늘어나면서 컨트롤이 좋아지기 때문에 템포와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웍스 크루저’ 퍼터는 1번 와이드, 7번, 2볼팡(2-Ball Fang), 브이 라인(V-Line) 네 가지 모델로 출시되며 가격은 38만원이다. 문의 : 02-3218-1900



MFS골프 이루다 드래곤 드라이버 TYPE-X 출시



MFS골프(대표이사:전재홍)가 최장의 비거리와 최고의 타감을 선사하는 ‘이루다 드래곤(IRUDA DRAGON) 드라이버 TYPE-X’를 출시했다. ‘이루다 드래곤(IRUDA DRAGON) 드라이버 TYPE-X’는 2012년 “이루다 드래곤(IRUDA DRAGON) 드라이버”의 2016년형 신제품으로 비거리와, 관용성까지 모두 겸비하였다. 이번 모델은 ‘이루다 드래곤(IRUDA DRAGON) TYPE-X Black’과 ‘이루다 드래곤(IRUDA DRAGON) TYPE-X Gold’ 두 종류로 구성되었다. 두 제품 모두 초고반발 헤드페이스를 장착한 2피스 구조이다. COR 계수 0.9에 접근시킨 최상의 반발계수를 구현하기 위해 최고급 DAT-55-X신소재를 사용하여 최장의 비거리를 보장한다. 또한 PGA투어프로들이 사용하고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MFS골프의 피팅샤프트를 채택하여 헤드와 샤프트의 궁합이 잘 맞아서 드라이버의 성능을 더 극대화 시켰다.

TWCC공법을 이용하여 한 층 얇아진 페이스면을 통해 스프링효과를 극대화 시켰다.

1) **넉넉한 체적의 딥페이스(Deep face) 구조로 골프가 더욱 쉬워진다.**
초고반발 박피 헤드페이스를 장착한 2피스 구조에 463CC의 넉넉한 헤드체적으로 셋업 시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한다. 또한 오토 플라즈마 용접을 통해 고반발 전용 컴페이스 구조를 적용하여 임팩트 시 스위트스팟의 범위를 25%확대하였고, 헤드 후방의 무게를 분산배치하여 관용성을 극대화하였다.

2) **이전까지의 고반발은 잊어라!**
COR 계수(반발계수) 0.9에 접근시킨 최상의 반발계수를 구현하기 위해 최고급 신소재인 DAT-55-X를 사용하였다. 또한 TWCC공법을 이용하여 한 층 얇아진 페이스면을 통해 스프링효과를 극대화 시켰으며, 적절한 연성을 구현하여 헤드파손을 줄이고, 부드러운 타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다운스윙에서 공기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헤드 솔(Sole) 양면에 유선형의 V-SLOPE 구조를 적용하여 샤프트의 뒤틀림과 헤드스피드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

히스케이 단조 AX-203 아이언 출시

히스케이가 선보인 AX-203 캐비티 아이언은 최상급 프리미엄 단조 아이언으로 고품질의 연철 S20C소재를 사용해 공이 헤드 페이스에 달라붙는 듯한 부드러운 타구감과 안정적인 방향성을 느낄 수 있다. 두드려 만드는 단조 헤드는 쇳물을 형틀에 부어 만드는 주조 헤드에 비해 일반적으로 타구감이 부드럽다는 장점이 있다. 캐비티백 구조로 이루어진 아이언 헤드는 토와 힐 부분에 하중을 적절히 분배해 관성모멘트를 극대화함으로써, 임팩트 시 타점이 흐트러져도 안정된 방향성과 비거리 손실을 최소화하고 편안한 스윙감을 제공한다. 쉽게 말해, 히스케이 AX-203 아이언과 같은 캐비티백 형태는 무게배분을 외곽으로 분배시켜 클럽헤드의 스위트스팟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골프실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볼을 칠 수 있다. 아이언샷에서 중요한 것은 긴 샷거리와 안정된 방향성, 적절한 탄도와 백스핀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적정 탄도와 백스핀은 아주 중요한 요소다. 백스핀은

볼을 뜨게 만드는 요소로 적정 탄도를 만들고, 볼을 그린에 세우는 역할을 한다. 히스케이 AX-203 또한 최적의 탄도, 백스핀을 만들기 위한 솔 디자인을 채택하였다. AX-203 헤드의 솔면은 잔디를 쓸어내듯 스윙할 수 있어 편안한 스윙을 만들고 클럽헤드가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라운드 형태로 설계되었다. 매끄럽게 그라운드 처리돼 잔디와의 마찰을 최소화한 솔은 어떤 컨디션에서도 쉽게 클럽이 빠져나올 수 있게 한다. 차별화된 명품 피팅클럽을 추구하며 진보된 소재들로 최상의 매치가 돋보이는 히스케이 AX-203의 활약이 기대된다.

문의 : 02-489-2931

헤드의 솔면은 잔디를 쓸어내듯 스윙할 수 있어 편안한 스윙을 만들고 클럽헤드가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라운드 형태로 설계되었다.



스윙폼 교정

Q. 필드 나가기 시작하지 6개월 된 초보입니다. 드라이버 비거리는 어느정도 나오는편인데 방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야외스크린 가서 등록된 영상을 보니 제가 봐도 하체가 고정되지도 않는것 같아요. 여러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배일성 프로입니다.

방향이 일정치 않아서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스윙의 기초를 확실하게 닦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윙의 기초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림과 셋업입니다.

동영상을 보면 '불량토리'님은 지나치게 스트롱 그림을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셋업 또한 매우 중요하네요. 백스윙을 하면서 등뼈가 일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상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 셋업 시에 자세를 약간 일어서서 셋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윙을 할 때 중요한 기초중 하나는 스윙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윙밸런스는 스윙 도중 체중이동이 올바르게 일어나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건데요.

'불량토리'님과 비교해 보면 오른발 뒷꿈치가 타이거우즈랑은 반대로 되어 있죠?



이때는 거의 체중의 90프로가 왼발 뒷꿈치에 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엉덩이가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체중이동은 왼발로 90프로 이동이 되어서 피니쉬가 되는게 좋습니다. 다시 오른발로 이동되면 지금처럼 이상한 자

세가 됩니다. 즉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스윙을 봤을 때 백스윙이 지나치게 커서 클럽헤드가 지면을 가리킬 정도이고 피니쉬에서는 하체의 회전이 너무 심해서 스윙밸런스가 무너집니다.

백스윙 탑은 클럽 헤드가 타이거 우즈처럼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할 때까지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백스윙이 크다고 비거리가 많이 나는게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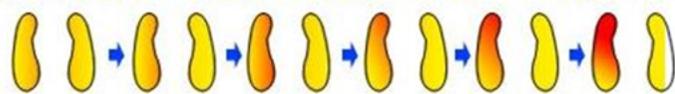
피니쉬도 타이거우즈처럼 체중이 왼발에 거의 다 있고 오른발은 살짝 지면에 대

고 있는 정도로 만들어 보세요. 쓸데없이 백스윙을 크게하고 피니쉬에서 회전을 많이 해서 방향이 들쭉날쭉하는 겁니다.

스윙을 간결하게 하면서도 임팩트 구간에서 파워를 실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스윙을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만 포기하기 말고 꾸준히 증진하다보면 금방 실금이 될 수 있습니다.

백스윙 탑은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할 때까지만 한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백스윙이 크다고 비거리가 많이 나는게 아닙니다.



스윙 과정에서 하체의 움직임과 체중이동 경로



배일성프로
성결대학교 골프 겸임 교수 역임
안양 그린파워 헤드프로 역임
Nicklaus/Flick Golf School 수료
잭니클러스 골프센터 리드 인스트럭트

GOLF HUMOUR

골프 유모어 속에 나타난 금과옥조와 같은 골프 팁을 재미있게 살펴보는 공간입니다.

골프 국민현장

우리는 골프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투어 프로들의 빛난 얼굴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폴스윙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핸디 확립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골퍼의 나아갈 바를 밝혀 왕성글의 지표로 삼는다.

정확한 아이언과 웅장한 드라이버로, 백스윙과 다운스윙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퍼팅을 개발하고, 비기너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장타의 힘과 강력한 쇼트게임의 정신을 기른다. 부킹과 티샷의 질서를 앞세우며 전홀의 배판을 숭상하고, 핸디와 구찌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서로의 불편함을 부추기고 갈구는 압박 정신을 복돋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19번홀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버린 야비한 골퍼로서, 라운드의 잔파를 모아 즐기란 노력으로 베스트 스코어를 창조하자.

재미로 보는 골프 국민현장이지만 핵심은 유머 속에서도 빠져나갈 수가 없죠.

정확한 아이언이라는 말이 눈에 띄니다.

골퍼중에 난 5번 아이언으로 드라이버만큼 친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아무 쓸모가 없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드라이버도 5번 아이언 거리밖에 안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번 아이언을 클럽 페이스를 닫고 미친 듯이 휘두르면 생각보다 아주 멀리 날아 갑니다.

보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드라이버를 300미터 친다든가 5번 아이언을 똑바로 170미터 일정하게 보낸다는 거죠.

웅장한 드라이버란 말이 참 마음에 드네요. 드라이버 칠 때는 쫄지 말고 자신감 있게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고난 저마다의 퍼팅을 개발하고란 말도 가슴에 와 닿는데 퍼팅은 집어 넣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강력한 쇼트게임의 정신을 기른다고 했는데 참 바람직한 말입니다.

쇼트게임이 강력하면 스코어를 줄이기가 참 수월합니다.

여기에 나만의 퍼팅이 가미된다면 못해도 보기로는 모든 홀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운이 따라 준다면 몇 개의 파도 가능하구요.

그럼 80대를 치게 되는 겁니다.

80대 부터는 쇼트게임에 열중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2 POINT 5만
1 POINT 10만
3 POINT 3만

2015년 10월 5일 ~ 2016년 01월 03일

위클리 신스태이بل포드 챔피언십

핸디캡이 필요없는 점수제 방식의 새로운 대회입니다.

각 스코어에 따른 점수를 획득해서 점수를 많이 획득한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대회 기간 중에 참여한 라운딩 스코어들의 총합이 높은 사람이 우승하게 됩니다.

신스태이블포드 룰

Points	Strokes taken in relation to par
+8 points	알바트로스 (-3)
+5 points	이글(-2)
+2 points	버디 (-1)
0 points	파(이븐)
-1 points	보기 (+1)
-3 points	더블보기이상 (+2 혹은 이상)

출인할시 추가 점수 : +5점
18홀 플레이 시 추가점수 : +10 점

* 월 왕중왕 전 : 매주 우승자 4명중 성적 상위 2명이 맞장대결로 월 왕중왕전 수상

대회 핸디캡 : 주우승자 -20, 준우승자 -10 (*3개월마다 초기화)

참가자격 : OK온골프 준회원 이상 (매장주, 매장관련 종사자 제외)

참가비 : 없음

로컬룰

1. 게임 영상 미존재시 시상 제외
2. 2개 계정 이상 계정 소유시 시상 제외
3. 수상자의 경우 동영상에 오븐 됩니다.
4. 중복시상불가: 상위상으로 수여
5. 게임 영상에서 세컨샷을 티 위에서 한 영상 존재시 실격처리 됩니다.
6. 동점시 참가횟수, 스트로크 최저타, 백카운터

주수상

1등	2등	3등	7위	총기	니어
10만 포인트	5만 포인트	3만 포인트	3만 포인트 (행운상)	2만 포인트	2만 포인트

월수상

👑 왕중왕 : 인테그라 드라이버 1개

👑 준우승 : 인테그라 하이브리드 우드 1개

상위 1% 골퍼를 위한 싱크로울 99%의 초정밀 시스템!
100% 리얼리티 필드를 구현하는 유일무이한 시스템!

오케이온골프 스피ن시스템

카메라센서라고 다 똑같은 센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카메라 센서는 볼의 스피ن량을 추정치로 계산해서 사용합니다. 정확한 실측에 의한 스피ن량을 측정하고 그 스피ن량을 실제 움직임과 똑같이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오케이온골프만의 기술력입니다.

초정밀고속 카메라

- 5대의 카메라가 마킹볼의 스피ن량을 입체적으로 실측하여 백스핀과 사이드스핀량에 따른 모든 구질량 표현합니다.
- 페이드, 드로우, 슬라이스, 혹은 롭른 피치 연 련, 러닝어프로치, 로빙 어프로치 등 숭게임도 완벽하게 구현됩니다.
- 꺾으면 꺾이는 데로 돌리면 돌리는 데로 파팅한 손맛을 그대로 재현하여 그린에서 볼을 멈추거나 백스핀을 걸 수 있습니다.
- 자유로운 볼의 위치로 편안한 라운딩을 제공하여 타석에 출몰된 센서가 없어서 필드에서 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좌우타석 겸용)
- 피팅 연습 시 런치앵글, 방향각, 사이드 스피ンを 분석하여 최적의 피팅 스트로크를 완성시켜 드립니다

Lightning-Halo 엔진

- 실제 사진처럼 느껴지는 첨단 그래픽 효과
- Full HD(1920*1080)를 베이스로 제작하여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 풍성한 러프의 질감과 헤비러프의 깊은 풀까지 자연스럽게 연대형 됩니다.
- 설치 환경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로 시공이 가능하여 라운딩 스코어도 지원합니다

N 자연을 담은 "네이처" 프로그램

- 물리학, 로보공학, IT공학, 프로그래밍의 전문 지식이 곳곳에 녹아있는 첨단 프로그램
- 지형의 고저, 중력, 바람의 저항, 풍의 저항, 지층의 층층계수, 지형의 단상계수등 자연의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하여 실제 필드에서 플레이하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 새로운 MSBS 엔진 적용! 정확한 임팩트의 피팅할 손맛을 그린에서 느껴보세요. 볼이 스피ن량에 따라 살아서 움직입니다.

러블리 캐디와 함께 라운딩 하세요~

- 완벽한 음성지원으로 라운딩의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 상황별로 어떤 샷을 공략하는게 좋은지 알려줍니다
- 똑똑한 미니 캐디의 간단한 원포인트 레슨으로 골프 실력을 늘리세요

PC Console

Camera

Beam Projector

골프스윙에서 왼팔과 오른팔의 역할

골프스윙에서 왼팔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지 오른팔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골퍼들을 위해 지금부터 완벽한 스윙과 임팩트를 만드는 양팔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우 프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GHLDNJS
 Nicklaus/Flick Golf School 수료
 2014년 jtbc골프 'All that Swing' 시즌 1 출연
 2014년 JNGK 테크니컬어드바이저 역할
 2013년 JNGK 최우수지도자 수상
 PING골프 소속프로
 現잭니클라우스 스카이힐아카데미 근무

테이크백은 어깨회전이 시작되면서 왼팔을 타겟 반대방향으로 밀어주며 시작합니다. 오른팔을 사용할 시 위 사진과 같이 손이 먼저 가는 잘못된 테이크백이 나오게 됩니다.



코킹시에도 왼팔을 사용해야 하는데 몸과 팔의 거리가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으며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의 코킹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른팔을 사용하여 코킹을 하게 되면 클럽이 처지거나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어 정상적인 백스윙 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탑에 도달했을 때는 몸과 손의 간격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꼬임이 더 완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연습해 보시면 왼팔과 오른팔의 사용타이밍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양손을 벌려 잡고 오른손은 손을 펴서 잡습니다. > 테이크백은 왼팔을 사용해야 합니다. > 탑까지도 왼팔을 사용하여 만들며 다운스윙도 왼팔을 사용하여 왼쪽 허벅지안쪽까지 리드합니다. > 이때까지도 오른손은 펴져있습니다. > 임팩트를 통과하여 릴리즈할 때 양손을 모아주며, 오른손도 그림을 하여 파워있는 스윙을 통해 피니시까지 연결합니다.

오래 머물수록 좋은 곳,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FIJI

FIJI의 에메랄드 빛 바다를 향해 날리는 시원한 퍼팅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나라 ‘Fiji Islands’. 따스한 날씨와 아름다운 자연환경 뿐 만 아니라 한없이 환한 미소로 화답하는 친절한 민족이 살고 있는 매력적인 여행지이다. 어디서든 듣게 되는 인사말 ‘Bula 부라!’를 환하게 건네며 여행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곳, 수줍게 웃는 꼬마아이들의 매력에 흠뻑 빠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치 고향으로 돌아간 듯 마음 평안해지는 오래 머물수록 좋은 FIJI를 소개한다.



333개의 크고작은 섬들로 이뤄진 피지는 북섬과 남섬으로 구분되는 2개의 큰섬 (Viti Levu, Vanua Levu)과 나머지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섬들에는 다양한 테마를 가진 약 111개의 리조트와 호텔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몇 달간을 머물다 새카만 얼굴이 되어 돌아가는 유럽의 젊은 배낭여행객들, 섬 하나에 리조트 하나가 지어져 있는 개인소유의 섬에서 최상의 프라이빗한 시간을 즐기고 돌아가는 연인들, 가족단위의 휴양객들, 장기간 머물며 골프를 즐기고 따스한 태양과 상쾌한 바닷바람 속에서 ‘여유’를 찾고 돌아가는 이들까지. 이들 모두를 만족시키고도 더 보여줄 수 있는 가치들이 가득하다.

한국에는 그 동안 신흥여행지 정도로만 알려져 온 FIJI Islands 이지만, FIJI의 진정한 매력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유럽 또는 미주지역 여행객들이 진정한 ‘힐링’을 위해 즐겨찾는 남태평양의 파라다이스로

유명세를 떨쳐왔다. 할리웃 유명연예인 및 정재계 인사들이 바쁜 일정 속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FIJI는 특히 유명한데, 그 까닭은 FIJI만이 주는 특유의 평안함이 재충전의 시간을 완벽히 만들어주기 때문 이란다. 이와 더불어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애호가들이 몇 달씩 머물며 휴양과 골프를 동시에 즐기는 것이 FIJI에서는 매우 흔한 휴양문화로 저렴한 비용, 잘 개발된 골프코스, 수려한 절경, FIJI 특유의 여유로움 등이 FIJI골프가 사랑 받는 이유가 되고 있다.

FIJI의 에메랄드 빛 바다를 향해 날리는 시원한 퍼팅

연습벌레로 알려진 비제이 싱의 출생지인 FIJI는 세계적인 프로 골퍼를 배출한 만큼 골프를 즐기기에 최상급 컨디션을 제공한다. 다양한 난이도로 설계된 열다섯 개의 골프장과 다섯 개의 챔피언십 코스가 들어서 있고, 웬만한 리조트마다 9

홀 코스를 갖추고 있어 FIJI의 어느 지역에 머물든지 간에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비제이 싱이 설계에 참여해 ‘비제이싱 골프장’으로 불리는 나탄돌라 베이 골프코스(Natadola Bay Championship Golf Course)에서는 PGA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개성 있는 홀과 FIJI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 친환경적인 운영에 매료된 골프애호가들이 FIJI를 주목하고 있다.

잔디의 상태가 훌륭한 골프장의 연간 회원권은 50만 원 수준으로, 한 달로 환산하면 4만 2천 원꼴이다. FIJI에는 호주, 미국 출신의 프로 골퍼들이 이주를 해 개인 레슨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의 하나가 된다. 끝없이 펼쳐진 FIJI의 산호바다를 배경으로 시원한 퍼팅을 날리며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나탄돌라베이 챔피언십 골프코스

(Natadola Bay Championship Golf Course)

나탄돌라베이 챔피언십 골프 코스는 나탄돌라 해변을 경계로 남쪽을 향해 뻗어 나간 18홀의 골프 코스로 FIJI가 낳은 세계적인 프로 골퍼 비제이 싱이 직접 설계에 참여해 화제가 된 곳이다. 비제이 싱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야심작으로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아름답고 뛰어난 절경을 자랑한다.

비제이 싱이 코스설계에 얼마나 고심 했는지 엿볼 수 있는 곳. 1번홀에서 코스를 내려다보면 잘 다듬어진 페어웨이 뒤편으로 하늘과 바다가 같은 색으로 펼쳐져 마치 한폭의 그림 같다. 전반을 마치고 후반 라운딩을 할 때에는 코스 디자인의 시원한 매력과 함께 코스를 넘어 당장이라도 밀려올 것같은 파도가 환상적인 경치를 자랑한다. 18홀의 코스는 어느 한 곳도 비슷한 느낌을 주는 코스가 없을 정도로 독특한 매력을 발산한다.



캐딜락의 색다른 매력 탐구

‘캐딜락 볼드 익스피리언스

패션, 디자인, 여행 등 라이프스타일과 연계한 캐딜락 브랜드 캠페인 일환
다양한 직업군 대표하는 시승자들이 직접 체험한 캐딜락의 다채로운 매력 조명

자엠코리아(주)가 다양한 직업군을 대표하는 일반인들이 캐딜락 대표 모델 시승 후 릴레이 시승기를 작성하는 ‘캐딜락 볼드 익스피리언스(Cadillac BOLD Experience)’를 진행한다. 최근 캐딜락은 글로벌 차원에서 패션, 디자인, 여행, 기업가정신 등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차량의 성능이나 기술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브랜드가 추구하는 프리미엄 가치에 걸맞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와 경쟁력을 문화 코드와 엮어 풀어나가고 있는 것.

그 일환으로 기획된 ‘캐딜락 볼드 익스피리언스’는 다양한 업계에 종사하는 일반인들의 시각과 경험을 통해 캐딜락의 다채로운 매력을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건축, 문화예술, 의학 등에 종사하는 일반인이 CTS, ATS 등 캐딜락 대표모델들을 시승하고, 이에 대한 솔직한 감상을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냄으로써 캐딜락의 다채로운 매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캐딜락은 이들을 ‘코리안 개즈비’, 즉 남다른 안목과 개성을 가진 스타일 마니아로 정의하고, 그들의 SNS에 게재된 시승기를 CTS 마이크로사이트에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이들이 소개하는 캐딜락의 색다른 매력은 오늘부터 캐딜락 CTS 마이크로사이트(www.allnewcts.co.kr) 내 ‘볼드 익스피리언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캐딜락은 남다른 안목과 개성을 가진 스타일 마니아로 정의하고, 그들의 SNS에 게재된 시승기를 CTS 마이크로사이트에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쌍용차

패밀리 오토캠핑 ‘힐링 인사이드’ 개최

제천 평산오토캠핑장에서 개최... 작은음악회, 미니스넥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고객 교류 및 다채로운 아웃도어 문화 발전을 위해 아웃도어 행사 지속 개최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www.smotor.com)가 특색 있는 오토캠핑을 통한 아웃도어 활동 제안과 고객 감사를 위한 숲속의 작은 오토캠핑 ‘힐링 인사이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충북 제천 평산오토캠핑장에 고객들을 초청하여 새로운 개념의 패밀리 오토캠핑 ‘힐링 인사이드(Healing Inside)’를 10월 한 달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티볼리 자동차 문패 만

들기, 어린이영화 관람, 인디밴드와 함께하는 힐링음악회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으며,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 어린 시절 향수를 떠올리는 부모 세대는 물론 어린이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김희선씨(32세, 인천 서구)는 “쾌적한 환경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 말 그대로 힐링되는 시간이었다”며 “같은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지는 1석 2조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마련되면 좋겠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쉐보레 레이싱팀 시즌 종합 우승!

쉐보레(Chevrolet) 레이싱팀이 지난달 18일, 전라남도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이하 KIC)에서 열린 ‘2015 CJ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GT 클래스 시즌 종합 우승을 확정 지었다.

배기량 5000cc 이하의 다양한 차종이 치열한 접전을 벌인 GT 클래스 최종전에서 쉐보레 레이싱팀은 고성능 1.8리터 터보 엔진을 탑재한 2대의 크루즈 레이스카로 선전을 펼치며 시즌 내내 착실히 쌓아온 승점을 더했다.

올 시즌 총 세 차례 우승컵을 안은 바 있는 안재모 선수는 안정적인 기량을 바탕으로 한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최종전 2위를 기록하며 종합 포인트에서 앞서 달리던 이재우 감독 겸 선수를 제치고 시즌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안재모 선수는 “팀과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마음껏 기량을 펼친 한 해였다”며, “출전 선수들의 기량이 평준화되는 가운데 전문 구동 크루즈로 제네시스 쿠파와 대등한 경기를 치러나간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내년 시즌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5 시즌 GT클래스에서 세 차례씩 우승컵을 차지한 안재모 선수와 이재우 선수가 시즌 종합 포인트 1위와 2위로 마무리 한 쉐보레 레이싱팀은 2007년 팀 창단 이래 일곱 번째 시즌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국내 모터스포츠 역사를 다시 썼다.

STITCH™ HEADCOVERS



Stitch Golf 헤드커버는 미국 North Carolina에서 100% 고급 소가죽으로 제작된 명품 수제커버입니다.

www.stitchgolf.co.kr

본사 (주)레이크스타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299-198 B동 B1

TEL 02-401-7054

DoggabeeGolf



길다! 비거리!

드라이버 맞아?
도깨비 방망이네!

초대형헤드 -

초경량드라이버 -

중반발력헤드 -

Royal Touch 샤프트 -

(주)도깨비골프 ☎ 1899-9030 www.도깨비골프.com



Transitions

눈 보호와 편리함의 만남, 니콘 트랜지션스

실내에서는 안경렌즈로 편하게, 실외에서는 선글라스로 눈보호와 스타일을 한번에



- ✓ 눈 건강 | UV로부터 100% 눈 보호 + 탁월한 눈 피로 감소 기능
- ✓ 편리함 | 하나의 렌즈로 실외와 실내 생활을 동시에!
- ✓ 지속성 | 높은 대비감도의 브라운, 그레이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스타일리쉬 그린!

facebook.com/nikonlenswear
www.nikon-lenswear.co.kr

2015 New 피팅브랜드의 선두주자
INTEGRA



커스텀오더가 가능한
내가 만들어 쓰는 드라이버

미국 특허 획득 (US PATENT : 465535)



CUP FACE

페이스 플레이트(타구면)가 헤드의 스킵트 영역으로 통합되어 용접면을 뒤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스윗스팟을 넓게 확장시키고 스프링효과를 높여 반발력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Quadratic IV Driver



Soolong 450R Driver



Soolong Fairway Wood



Soolong Hybrid Wood



Soft Cast Wedge



Black Nickel Putter